

고유가에 전기차 ‘질주’... 광주·전남 1년 새 25% 급증

지난달 기준 광주 2만대·전남 4만5000대 넘어서 전기차 보조금 조기 마감...“추가 재원 확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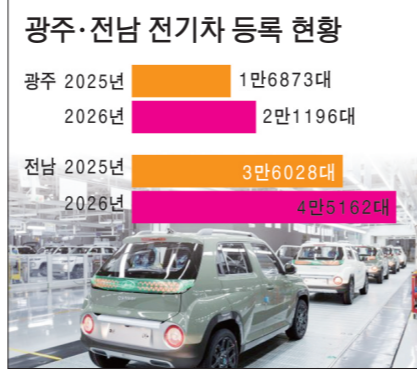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차량 유지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 장기화 조짐과 함께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맞물리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로 풀이된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광주지역 전기차 등록대수는 2만1196대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5년 3월 1만6873대와 비교해 4323대 증가한 수치

로, 증가율은 25.6%에 달한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전남 전기차 등록대수는 3만6028대에서 4만5162대로 9134대 늘어 약 25.4% 증가했다.

광주와 전남을 합한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5만2901대에서 올해 6만6358대로 1만3457대 증가했다. 두 지역 모두 25%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 증가 흐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고유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상승했고, 이에 따라 차량 유지비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전기차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

는 충전 비용이 내연기관 차량 대비 낮고, 각종 세제 혜택과 유지비 절감 효과가 부각되면서 경제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전기차 수요 증가는 보조금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한 올해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에서 당초 계획했던 물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며 조기 마감됐다. 신청 접수 시작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준비된 물량을 모두 채우면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전남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몰리며 광고 물량이 빠르게 소진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접수 개시 후 단기간 내 마감되는 사례도

이러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수요가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전국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전기차 신규 등록 속도는 해마다 빨라지고 있으며, 올해는 누적 등록 대수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역시 전기차 보급 확산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빠른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 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도심 외곽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전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충전 시간 문제와 함께 생활권 내 충전시설 부족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

으로 꼽힌다.

또한 보조금 정책의 안정성 확보도 필요하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 시기 조정이 어려워지고 시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전기차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과 친환경 정책 기조가 맞물리면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며 “충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보급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026 월드IT쇼’ 삼성전자가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26 월드IT쇼’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사진은 ‘월드IT쇼’ 삼성전자관 전경.

광주상의, 가전산업 ‘스케일업’ 시동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컨설팅·판로개척 최대 500만원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에 나선다.

광주상의는 지역 가전기업 및 융·복합 제조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복합 가전산업 성장동력 고도화 스케일업(Scale-UP)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와 광주지방공공노

동청이 지원하는 ‘2026년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전산업 고도화와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 생태계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노린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가전 및 융·복합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으로, 융합기술 기반 제조기업까지 포함된다.

참여기업은 ‘기업 심층 역량강단’을 거쳐 기술력·경영역량·시장성 등을 종합 분석받는다. 이를 토대로 기업을 성장·혁신·도약·시장확장 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 맞춤 지원이 이어진다.

맞춤형 컨설팅 대상 기업에는 R&D, 시험·인증, 경영, 세무 등 기업당 최대 300만원 규모의 자문을 지원하며, 정부·지자체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병행된다. 또 신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대상 기업에는 국내외 조달 등록, 전시박람회 참가, 판로개척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당 최대 500만원 내외의 지원이 이뤄진다.

송대용 기자 sdw0918@

전남TP,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본격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추진

전남테크노파크가 지역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선다.

전남테크노파크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도 등과 함께 ‘2026년 전남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1억4000만원 규모로 추진되며, 전남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산업특화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초기, 도약, 성숙 단계로 구분해 지원하며, 기술개발 기획, 시제품 제작, 제품 고도화, 인증·특허, 마케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주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화학·철강 등 제조산업과 에너지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특화 지원과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전남TP는 지난달 20일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공고 이후에는 보다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상담 테이블’을 운영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5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이후 평가를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며 “상담테이블 운영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

HD현대삼호, 외국인 근로자 ‘건강 안전망’ 구축

목포시의사회와 협력 의료봉사 정기적 운영

HD현대삼호가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나서며 지역 산업현장의 ‘건강 안전망’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HD현대삼호는 최근 회사 건강증진센터에서 목포시의사회 소속 의료진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이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사전 예약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내과·정형외과·산부인과 등 주요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초음파 등 영상진단 기반의 정밀검진이 이뤄진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과 비용



HD현대삼호는 최근 회사 건강증진센터에서 목포시의사회 소속 의료진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부담으로 병원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아 산업현장 내 건강 관리 사각지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HD현대삼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건강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특히 양 기관은 단순 진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축적되는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영암·현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